

보도자료

서울 광진구(을) 국회의원 **고민정**



담당자 안순모 보좌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29호 TEL 02-784-4631 FAX 02-6788-6055

배포일 : 11월 15일(화)

서울시 이태원 참사 발생 11분만에 “압사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 통보 받아

- 서울시 종합방재센터-재난상황실 핫라인 통보 내용 최초 확인
- 오후 10시 26분 최초 보고 후 2~3분 간격 핫라인 통보에도 30분간 무대응
- 고민정 의원 “핫라인 통보에도 초동조치 않은 서울시 책임 규명 불가피”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종합방재센터)로부터 이태원 참사와 관련 10월 29일 저녁 10시 26분 유선으로 참사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서울시 재난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 이를 시장단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으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왔습니다.

※ 참고: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산하기관. 서울시재난상황실은 서울시 재난상황 총괄 부서

그러나 고민정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발생 11분만인 10월 29일 저녁 10시 26분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방재센터)가 핫라인을 통해 재난상황실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며 구체적인 사고 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핫라인 통보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보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오후 10시 15분, 119로 사고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용산 소방서와 종로소방서에 최초 출동 지령을 내렸고, 종합방재센터는 사고 접수 11분 뒤인 오후 10시 26분 재난상황실에 유선(핫라인)으로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신고 많이 들어오고 있다’ 고 통

보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을 모두 사실로 가정해 정리해보면 재난상황실은 핫라인을 통해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는 통보를 받고도 30분간 서울시장, 부시장 등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후 10시 43분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뒤, 종합방재센터는 오후 10시 45분 소방 대응 1단계 발령 사실을 재난상황실에 통보했습니다. 2분 뒤인 오후 10시 47분에는 ‘대응 1단계 확인, 할로윈 축제 CPR환자 10명 정도 추정’ 내용을 유선통보했고, 오후 11시 7분 ‘할로윈 행사에 인사사고 난 상황 재확인 통보’ 를 했습니다. 이어 5분 뒤인 오후 11시 13분 구조 대응 2단계 상향 통보, 오후 11시 15분에는 ‘이태원 축제 중단’ 을 유선으로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유럽 출장 전 행정부시장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놓고 떠났다고 말했으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은 허점투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승 행정1부시장과 한제현 행정2부시장 등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저녁 10시 56분 종합방재센터가 보낸 구조 대응 문자메시지를 통해서였습니다. 부시장단은 압사신고 핫라인 통보를 30분간 아예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핫라인 통보 후 약 1시간 이후에 보고를 받은 셈입니다.

고민정 의원은 “ ‘압사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는 핫라인 통보에도 서울시 재난상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초동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만큼 서울시에 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 지적했습니다.

첨부.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시 유선통화(핫라인) 시간 및 내용

연번	시간	내용	비고
1	22:26	이태원 할로윈 축제 압사신고 많이들어오고 있다 통보	
2	22:45	대응1단계 발령 통보	
3	22:47	대응1단계 확인, 할로윈 축제 cpr환자 10명정도 추정 통보	
4	23:07	할로윈 행사에 인사사고 난 상황 재 확인 통보	
5	23:13	구조대응2단계 상향 통보	
6	23:15	이태원 축제 중단 요청	

<끝>